

1 개요

함덕본향당본풀이는 함덕리 서물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함덕리 김첨지가 낚시를 할 때마다 미륵돌이 걸려오더니 꿈에 신이 나타나 자신이 용왕국 딸이라고 하고 자신을 모시면 잠수와 낚시배를 돌보아주겠다고 해서 당신으로 모시기 시작하였다.

2 내용

함덕 김첨지하르방이 백발 되는 낚싯줄에 천근되는 뽕돌, 미늘 좋은 큰낚시에 터우를 타고 나가 고기를 낚았다. 그런데 자꾸 미륵돌만 걸려 올라오기에 버려두고 왔다. 두물날도 마찬가지였다. 서물날 다시 낚시를 가니 역시 미륵돌만 걸려 올라왔다. 심심해서 잠이 드니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 ‘나는 용왕국(龍王國) 무남독녀(無男獨女) 딸아기다. 인간을 돌보자고 인간에 나왔노라. 알가름[下洞] 팽나무 아래로 모셔서 한물 두물 서물날 나를 위하여라. 그리 하면 모든 잠수(潛嫂)와 오가는 낚시배를 잘 돌보아 주마.’고 하였다. 이에 김첨지하르방은 미륵돌을 모셨다가 당신으로 모시고 제향하기 시작하였다.

3 특징

낚시줄에 걸려 올라온 돌멩이를 미륵이라 하면서 당신으로 모시는 사례를 담은 본풀이이다. 이로 보면 서물당은 함덕리 알가름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바다 생업에 종사하던 이들이 모시던 담임을 알 수 있다. 당신의 성격으로 보아 본향신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문의 서두에 ‘서울 먹자골에서 솟아난 급서황하늘’이라고 하는 신이 소개되었고 이 신은 용왕국따님과 동일한 존재가 아닌 것으로 보아 별도의 신임을 알 수 있고, 이 신이 본래 함덕리의 본향신이었을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4 핵심어

김첨지, 서물당, 미륵돌, 용왕국, 무남독녀, 알가름, 잠수, 낚시배, 함덕리

5 원전 서지사항

함덕본향당본풀이(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6 관련 자료